

文대통령 “추경·日 대응만큼은 힘 모아야” 與원내대표단 청와대 오찬…“협치로 희망 드려야”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성, 추경 중요성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격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 및 추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확장적 재정운용과 관련, “가장 시급하게 적용돼야 할 부분이 추경이고,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정치가 많이 어렵다”며 “선진 정치 국가인 유럽도 많이 어렵고, 페이스북(가짜뉴스)라든지 정치가 회화화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원내대표단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5당 협의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든 이와 관련된 협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거론되는 개각과 관련해선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당정정 관계 속에서 상반기에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90일째 표류 중인 추경에 대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

을 토로하면서 “민생과 국익이라는 원칙 하에서 유연하게 현 상황을 돌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며 “경제활력, 공정경제, 민생안정 분야에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 성과 도출에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법안처리 비율은 제1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처리율이 28.8%에 머물러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국회 운영 전략으

로 7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입법추진단 등을 통해 서비사업발전기본법, 빅데이터 3법 등 59개 중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 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기자

볼턴, 오늘 정의용·강경화·정경두 면담

한반도 비핵화 협의·한일 갈등 ‘중재’ 관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한국을 방문했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볼턴 보좌관은 이날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 는 일정 외에 다른 일정은 소화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단독 방한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이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떠나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그의 한일 양국 방문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양국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그는 전날 도쿄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났다.

고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과 고노 외무상이 정유 문제와 스마트폰·TV용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결정에 따른

한일 간 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의 일본 방문에 이은 이번 방한에서는 한일 갈등사태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볼턴 보좌관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주된 목적으로 방한하긴 하지만 한일 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양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만큼 그가 모종의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한일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아마도(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관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참 “러 조기경보기, 동해 영공 침범”

軍, 360여발 경고사격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1대는 A-50 조기경보통제기라고 밝혔다.

타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전투기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전방 1km 거리로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오전 한국방공

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군용기는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와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라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는 KADIZ를 무단 침입한 중국 폭격기에 대해 20여회,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에 대해 10여회 등 30여회 무전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공군 전투기는 특히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을 향해 1차 침범 때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 두 번째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

합참 관계자는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KADIZ를 진입한 타국 군용기 전방 1km 근방으로 경고사격을 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서삼석 “농수축산분야, 일본 보복 대비해야”

여당 내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국내 농수축산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국내 농수축산물 수출 비중이 높은 나

라이기 때문에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을 확대해 나갈 경우 신선도에 영향을 받는 농수축산물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대일 의존도가 높은 각종 종자 등에 대한 독자적인 품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국내 농수축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대책으로서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대비한 구제적이고 강도 높은 시나리오별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민주 광주시당, 지방의원 日연수 전면 취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 국회의원) 소속 시·구의원들이 을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었던 일본 연수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한국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전 국민적인 분노와 더불어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장 교육연수위원회는 미리 계획된 연수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시장 교육연수위원회는 “일본

의 경제보복 조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한 당 차원의 지원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본제품을 사지 않거나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등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국민적 노력도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일본의 만행이 정상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당 소속 시·구의원들의 일본 연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자매회사: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야외 결혼식

칠순잔치

체육대회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

CMYK